

# 행복한 책 읽기

## 모연 '개구리' <민음사 권>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  
광주광역시내버스 차체에 붙어있는 출산장려 문구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시내를 종횡무진 하는 시내버스에 광고할 만큼 심각하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 우리나라도 1960년대에는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등의 표어가 곳곳에 등장했던 것이다.

아무튼 그때의 홍보나 교육이 초과달성했는지 지금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됐다. 심지어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한국이 현재의 저출산율을 지속한다면 2305년 한국인은 멸종하고 말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기도 했다.

관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을 강요받으면서부터이다.

간혹 어떤 정책이 시행될 때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보다 밑에서 일하는 사람의 행동이 더 강경할 때가 있다. 사람을 살리는 의술을 배워 죽이는 의술을 펼치게 된 고모의 행동은 끈기에 가깝다.

'우리 지역 방침이 뭔지 알아? 독약을 먹겠다는 사람은 약병을 빼앗지 않고, 목을 매달려는 사람은 밧줄을 주게 되어 있어.'

이렇듯 고모가 자신이 손수 받았던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

## 중 가족정책 이면에 숨겨진 진실

이 책은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인 계획생육 문제를 다루고 있다. 거의 반세기 동안 시행되어 오며 지금까지도 중국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계획생육의 모토는 '한 가족 한 자녀'이다.

중국은 유교문화권이라 가문은 남자가 이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본다면 이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아이를 하나밖에 가질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대가 끊길 수도 있다는 데 있는 것이다.

주인공의 고모는 신식 의술을 배운 산부인과 의사로 젊었을 때에는 우매한 산파들에게 고통 받는 산모들의 희망이었다. 그런 고모가 살아있는 열라대왕이라고 악명을 떨치게 된 것은 산아제한 정책을 펼치게 된 정부로부터 정

면서까지 혹독하게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것은 혁명열사의 딸에서 매국노의 약혼자가 되어 버린 자신에 대한 살길이었는지도 모른다.

저자는 소설 전반부에서는 계획생육 정책의 피해자였던 주인공을 후반부에서는 대리모를 통해 불법으로 아들을 얻는 가해자로 설정함으로써, 아무리 오랜 시간 시행해온 계획생육의 당위성이라도 생명의 본질에 대한 인간의 본성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중국의 계획생육은 국내적으로는 호적에 올리지 못한 어둠의 자식이나 이기적이고 무기력한 소환제를, 국외적으로는 출산에 대한 지나친 억압이라는 비판을 양산해 왔다. 그럼에도 정책이 없 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생명력이 강하다는 의미 일 것이다.



나정이

1998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자

## 지역작가들이 만든 최초 협동조합 갤러리 창작지원·작품판매·작가들 자립기반 마련



대인예술시장에서 창작하고 있는 작가들이 또 일을 했다. 대인시장에 작업실을 마련해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이 작품제작과 유통을 책임지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갤러리를 오픈했다. 외부 도움없이 작가들 스스로 힘을 모아 시장 내에 작품을 선보이는 갤러리 공간을 만든 것은 광주지역 최초 사례다. 미술시장의 불모지나 다름 없는 광주지역에서 작가들이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한 것이다.

대인예술시장작가협회 '다다'(이하 다다)는 30일 오후 대인예술시장 내 6평(20㎡) 남짓한 공간에 '갤러리 다다'를 개관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갤러리 다다 프로젝트'에는 다다 회장 이기성(44·조각)씨를 비롯해 배우민, 전현숙, 채지윤, 조승기, 정유승, 김형진씨 등 서양화·동양화·설치·조각·공예 등 미술 전분야를 아우르는 작가 24명이 참여했다. 모두 대인예술시장

내에 있는 공간에서 수년간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로, 시장 간판에 벽화를 그리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대인시장에 '예술항기'를 퍼트려온 주역들이다.

다다는 지난 4년 동안 아마추어 작가인 시장상인들에게 미술도구를 빌려주고 심터 역할을 했던 옛 '다다익선' 공간을 작품전시와 판매가 가능한 갤러리로 바꿨다. 작가들 스스로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작품을 배치했다.

갤러리 다다의 가장 큰 목표는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전시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작품을 판매해 작가들의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다.

작가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판매해 갤러리를 운영하고, 그 수익금 중 일부는 작가들의 창작비로 되돌려준다는 구상이다. 또 내년 초에는 누적된 수익금으로 보다 좋은 장소로 보증자리를 옮긴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일반 사설갤러리와 달리 전시되는 작품의 장르가 다양할 뿐더러 가격 또한 저렴하다는 것이 갤러리 다다의 큰 매력이자 이점이다. 도자기, 드로잉 등 소품은 2만~3만 원에도 구입할 수 있다.

이 회장은 "작가들이 공공기관의 창작기금 지원을 받아 작업을 하면 결과물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할 수 없다"며 "갤러리 다다는 아무런 조건 없이 창의적인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젊은 작가들과 중견작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개념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다는 원활한 갤러리 운영을 위해 8월 중 가칭 다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광주문화재단이 후원하는 대인 야시장과 별개로 야시장을 꾸러나갈 예정이다.

'다다 야시장'(가칭)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야시장의 컨셉은 '작가들이 즐기는 야시장'이다. 기존 사람들을 불러모으기 위해 진행했던 야시장과 달리 작가들이 하고 싶은 퍼포먼스를 통해 예술 시장의 면모를 더욱 강화시켜나간다는 구상이다. 야시장에서는 미술품도 판매된다.

또 대인예술시장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계기관에 전달해주는 역할도 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그동안 예술야시장과 예술공장, 장물방이 선물가게를 공동운영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각적인 준비를 해왔다"며 "궁극적으로는 작가들의 경제적 자립과 함께 '삶과 예술을 이어주는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삶과 예술 이어주는 공간으로

대인시장 입주 작가 24명 '갤러리 다다' 오픈



## 미술관으로 들어온 앵무새



김계현 작 '앵무새케이지'

'미술작품이 소곤소곤 말을 건다.'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 로비 문화공간 전체가 미술작품을 통해 훌륭한 '예술 피서지'로 탈바꿈했다. 로비를 헤엄치는 물고기떼가 시원한 여름바다를 선물하고, 의자 옆에 놓인 야자수 작품은 서늘한 그늘을 선사하는 것만 같다. 야자수 그늘에 앉아 있으면 밀밀 속 잉꼬가 말을 건네고, 고래가 이따금 수면으로 고개를 내민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8월21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이야기하는 사물' 여름방학특별전 8월21일까지

'이야기하는 사물'을 주제로 여름방학 특별전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에는 사물에 대한 작가들의 독특하고 따뜻한 시선이 담긴 회화, 입체, 설치 등 4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신진·중견 작가 18명은 일상생활 속 사물들의 이야기를 관람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예술 작품으로 표현했다. 사물을 대하는 작가들의 유쾌하고 낭만적 시선이 신선한 재미를 준다.

전시기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8월 3·10·17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유쾌한 상상놀이, 키즈클래스'에서는 전시 작품 이미지를 이용해 에코백과 티셔츠를 만들어 볼 수 있다. 8월8일 오후 2시에는 박형규 작가와 함께하는 미술수업 '폼지락 폼지락 작품을 만들어 보아요'가 진행된다. 두 프로그램 모두 7~12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문의 062-360-127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2

##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프리미엄 뷔페

## 아이엘리시아

돌잔치, 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90석, 68석 40석28석, 16석 료완비)

# YONAMJA 유스퀘어점

매콤한 오남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봉골레

Yongole ₩10,800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 herb crispy chicken steak ₩10,800

핫 스파이스 오렌지 소스 포크 스테이크

Hot Spicy Orange Sauce pork steak ₩10,800

허니고곤졸라 피자

Honey gorgonzola pizza ₩12,900

오시는 길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